

앞뒤가 바뀐 교육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병든 현실을 보면 이 나라에 교육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할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병리 현상과 국민들의 삶의 태도에서 교육부재 현상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유난스러울 만큼 열성적인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열과 하늘만큼 치솟는 교육비에 밤낮없이 공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이들, 게다가 한 해가 멀다하고 뒤바뀌는 정부당국의 교육정책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이 나라의 교육은 좀처럼 그 앞날이 내다 보이지 않는다.

이 나라의 교육이 이 지경이 되어버린 일차적인 책임은 말할 나위도 없이 교육을 주도하고 교육정책을 입안해온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정책을 정권이 바뀔 적마다 조령모개하기 일쑤였고 교육철학은 차치하고 교육에 대한 기본 상식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위 교육 문외한들이 이 나라의 교육을 주도해 온 결과가 교육부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 나라 교육부재 현상의 이차적인 책임은 각급학교와 가르치는 사람들도 결코 면할 수 없다. 이들은 스스로 먼저 져야 할 자신들의 책임마저도 정부에 쉽사리 떠넘기면서 무사안일의 타성에 젖어 창의성이 결여된 단순한 지식의 기계적인 전수와 입시제도에 안주하였고 졸업장과 학위증 발매업소로 전락하여 버렸다. 가르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스승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은 망각한 채 알량한 지식이나 판매하는 '지식소매상인'으로 변신하여 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 나라 교육부재 현상의 삼차적인 책임은 가정과 부모들도 결코 면할 수 없다. 태교란 말도 있거니와 인간의 일생은 어머니 품 속에서부터 틀이 잡히기 시작하는 것이다. 자녀들이 그릇될 때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고, 부모로서의 행동거지를 스스로 엄격하게 삼가며 자녀들 앞에서 말과 생각과 마음 씩씩이에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책임이거늘, 요사이 이러한 부모를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의식주나 해결해 주고 용돈이나 주



한남대 총장 김 세 열

면 부모로서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착각하고 자녀들에게 결코 보여서는 안 될 추태와 금기 사항을 생각없이 아무렇게나 홀리고 다니는 무책임한 부모들이 적지 않은 듯하여 나라의 장래가 적이 염려된다.

교육의 대상은 인간이다. 그리고 교육의 목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인간의 두뇌를 훈련시키는 지성교육(知性教育)이고, 둘째는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심성교육(心性教育)이며, 셋째는 인간의 얼과 혼을 다듬어주는 영성교육(靈性教育)이라 할 것이다.

인간의 기계적인 사고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두뇌라고 한다면, 이 사고기능과 인간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인간의 영혼(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성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심성교육이며 세 가지 교육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인간의 영성교육이다. 이렇게 볼 때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는 자명해진다.

사람의 됬됨이를 결정짓는 것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과 얼일진대 이 근본이 되는 인간의 마음과 얼을 먼저 바르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며, 이러한 참된 인간을 길러 내는 일이 곧 참된 교육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 다스림과 얼의 가다듬음이 선행되지 않은 두뇌교육은 그 자체가 죽은 교육일 수밖에 없고, 자기의 마음과 혼을 다스릴 줄 모르는 지식인은 그 쌓은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오히려 교활하고 무자비하며 몰인정스럽고 포악하여 차라리 지식없는 어진 사람보다 못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앞뒤가 뒤바뀐 우리의 교육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